모든 것을 중심을 잡고 똑바로 중도에서 보라

☞ 21면에서 계속

대로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하라' 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놔라. 한군데서 들고 나는 거다.' 역대를 한군데서 들고 나면서 이렇게 해 왔는데 바깥으로 방황하기 때문에, 그 한군데로 들고 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하기를 요새 이렇게 하죠. 용광로에 모든 것을 넣는다면 자동적으로 새 쇠로 생산이 돼서 나오는데, 생산될 걱정까지 하면서 거기 놓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하는 탓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빠르고 빠른 세상에 앞장설 수 있는 인등이며, 마음의 향기로운 향이며, 밥 한 그릇을 놓고 바로 다 먹이고도 한 그릇이 되남을 수 있는 그런 중용을, 바로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같이 계합해서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따로 없이 계합해서 중용을 하는 것이 그대로 법이다 이 소리죠. 그러니 관하라.

내가 지나올 때, 이런 말이 있더군요.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모두 달라. 참선하고 좌선하는 사람들이 모두 마음들이 달라요. 이거는 저녁에 단 한 시간이나 30분 앉았는데 말이야,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전부 끊어졌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아이고, 오늘도 끊어뜨리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다. 이러니 언제 공부는 하느냐."라고 한탄들을 하거든요. 나는 그때 빙긋이 웃었죠. 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됐는데, 즉 말하자면 둥근 톱니가 아래 위 게 마주쳐서 같이 돌아가는데 거기 끊어진 게 붙을 자리가 어딨고, 이어지는 게 끊어질 자리가 어딨느냐 이거죠. 그대로 돌아간 건데. 그대로 돌아갔고, 그 24시간 끊어졌다는 생각 하기 이전에, 그냥 그 생각이 순간 날 때에 톱니는 24시간이라는 게 없이 그대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지.

또 하루 종일 일한 것이 누가 일을 하게 만들었던가. 내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걸 만들었지 누가 딴 사람이 시킨 게 아니야, 내가 있기 때문에. 소가 언덕이 있으니까 비비듯,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부처가 있고 모두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을까? 내가 나를 시자 부리듯이 그렇게 부렸지 누가 부렸을까? 그놈이 시킨 거지. 그놈이 시킨 거니까, 그놈이 하는 거니까, 그놈의 집이니까, 그놈의 시자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순응해서 따라갈 뿐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지. "모든 진리에 순응하라. 그리고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어라. 바쁘게 맥박 뛰듯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거기에 순응 안 하고 항상 '이게 뭣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잘못됐느니 저게 잘못됐느니,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다가는 몸뚱이 떨어지면 그 또한 떨어지느니라. 지금 의식 가지고 몸뚱이가 떨어져서 간다면 눈도 멀고 귀도 멀어서 아무 데나 들어서 아무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다면 그 모습 벗기가 상당히 어려우니라." 이랬거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또 한 가지 있죠. 부처님 당시에 석존과 유마힐 거사가 나란히 어깨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가 입산한 스님이든 스님이 아니든,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은 불성이 다 있고 이 공부를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을 표현한 거고, 둘째는 그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항상 같이하고 있으니 유마힐과 부처는 둘이 아닌 것이고, 둘이 아니기에 모습은 유마힐 거사라는 방편, 부처님이라는 방편을 썼지만 그것을 지금 영화의 배우들이라고 본다면 부처님의 역을 맡아 가지고 나온 것도 자기의 그 근본의 종지가 바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통달했기 때문에 그 배역을 가지고 나온 거죠. 유마힐은 유마힐대로 그 배역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를 두고 이 공부를 똑같이 했어도 뿌리는 같으나 모습이 각각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중생들은 말없이 거둘지언정 아무리 해도 보이는 데서는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으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거죠. 안팎을 다 이끌어 가려고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 선녀가 내려와서 말을 했더니,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늘에서 꽃잎을 떨어트린다' 한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게 와서 붙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와서 걸리는 거야. 그저 이게 오면 이게 옳다, 저게 오면 저게 옳다 그저 자꾸 붙어 돌아가니까 그것이 바로 무명에 덮이는 게 되고, 안이하게 둘이 아닌 도리만 알았지 너 나가 따로 있는 반면에 배출하는 도리를 몰랐다 이거야, 지금. 화(化)하는 도리를 몰랐으며 배출하는 도리를 몰랐으며, 중용을 할 줄 몰랐으며, 자기라는 아집을 두었으며,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붙어 돌아가는 거죠. 붙어 돌아가는 동시에 그걸 자꾸 떼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는 것은 칼로 물 베기라, 끊어지나, 그게?

그 진리에 순응하면서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폭포수 물이 흘러서 바다를 메우고 흘러 흘러 돌아가는데 거기에 순응을 해야만이 그 물이 틈이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틈이 없다 이거야. 틈을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틈 내지 마라." 하는 거를 게을리하지 말라, '관하는 데 게을리하지 말라' 이러는 거죠. 틈이 있어서는 바로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돌아가는 이 자연의 진리에서 자꾸 끊어지니까 그걸 끊어뜨리지 말라고 한 거지, 남이 준 화두를 가지고 끊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 사람은 좀 더 크게 눈을 뜨고 넓혀서 보고 위로 꼭대기로 마음이 훌쩍 올라가서 내려다볼 줄 알아야 하고, 옆으로 봐도 안 되고 위에서 내려다봐서 다 볼 줄 알아야 되느니라.

엊그저께 "우리 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8대조 할아버지가 유능하셨는데 이 묘지를 다 이장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좋다면 좋다는 대로 그 자리가 좋은 자리죠. 그러나 그 사람네들은 그걸 아예 몰라. 그 8대조 할아버지는 예전에 참 유능하셨던 분이라 참 위대한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아는 소리를 할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방편으로써 "산이 이렇게 됐으면 당신 사놓은 자리는 이건데 이 자리는 아니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당신이 흥정을 해서 이 산을 마저 산다면…, 여기다가 세 분 묘지를 모시고 그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한 예가 있죠.

보는 것도 도가 아니라고 한 것은 오신통이 재료로 돼 있는 거를 내가 마음대로 그것을 벗어나서 굴릴 수 없다면 마음으로부터 누진(漏盡)으로 굴릴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가고 오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심안으로 본다 하더라도, 각종의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남의 속을 전부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남의 과거를 전부 안다고 해도 도가 아니니라." 그렇게 한 것은 거기에서마저도 벗어나야 네가 그 다섯 가지의 재료를 마음대로 굴리면서, 바로 중생들을 안아 줘도 그 바퀴만 굴러 나간다면은 그냥 건져지느니라. 그래서 모든 걸 안아도 두드러지지 않고, 모든 걸 내놔도 줄지 않는 반면에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릇대로, 용도대로에 다 아시고 응해 주시고, 안아 주시니…. 그래서 천백억화신이 응해 주시고,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줄 거는 주고 빼앗을 것은 빼앗고, 이러는 것은 뭐냐? 빼앗아도 자비고 줘도 자비다 이거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신병을 앓는 사람은 주장자를 빼앗아야 하고, 그래야 잠이 들고, 또 불종은 심어서, 씨를 심어서 이게 날 듯 말 듯 하는데 만약에 길러 주지 못한다면 안 되니까 그것을 길러 주기 위해서 내가 주장자를 줘야 하고…. 그래서 임제 스님은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주장자를 너를 줄 것이로되…." 그 참, 뜻이 깊죠. 주장자는 있으나 배출을 못 하고 용도에 따라서 굴릴 줄 모르는 사람 앞에 스님께서 주장자를 준다면 그것이 활연히 개오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주장자를 너를 줄 것이로되." 즉 말하자면 "네 물이 얕아 조그만 고기밖엔 놀 수가 없으니, 깊은 물에 큰 배를 띄울 수 있고 그 큰 고기가 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너한테 배출시켜 주마." 하는 소리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 그런 뜻이 서려 있는 거는 모르고, 그 말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습관은 좀 버려야 하지 않나.

아까 얘기한 거, 꽃잎 얘기 한 것도 붙으면 붙은 대로 떼어지질 않는데 그걸 놔 버린다면은 그대로 붙지 않고 그냥 떨어지지 않느냐. 그 소리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성문 연각(聲聞緣覺)들은, 즉 말하자면 지금 말로 자기 불종을 계발해서 배출시킬 줄 모르고 자기만 편안하게 아방궁처럼 들어앉아서는 그냥 키우지 않는 형국이니, 불종자를 아주 삶아 먹는 거나 똑같다 이런 소리지. 우리가 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본다면 그 밑바닥에는 그런 뜻이, 아주 무궁무진한 뜻이 서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문수보살이 물었던 거, 유마힐 거사가 대답했던 거는 나부터 믿어서 나부터 거기 놓고 모든 걸 한마음의 의식이 돼서, 바로 진화가 돼서 보살로 되어야만이 생사에 뛰어들어서 그 중생들을 건질 수 있다 이런 소리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다음에는 무슨 말을 거푸 했느냐 하면 "보살은 중생들을 위해서 생사에 뛰어드니 어찌 병이 없으리. 중생들의 병이 나아진다면은 보살 또한 병이 나아질 수 있노라." 하고 거기에 붙여서 말씀하셨다 이거야. 그것은 나부터 알고 나부터 진화시켜서, 나부터 보살로 화(化)하게 만들고 난 뒤에는 그대로 보살로 화해서 털구멍을 들고 나면서 온통 건진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 여자 남자가 따로 없고, 우리 보십시오. 그전에도 항상 얘기했죠? 여자 남자가 따로 없다. 동서가 따로 없다. 우리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 더 넓게 보지 못하고 "아이고, 서쪽으로 떨어진다." 무슨 "동쪽이다." 하고 산맥을 보는 데도 그렇고, 산소를 쓰는 데도 모두 그렇게 보거든. 동서가 어디 둘이에요? 그러니 우리 참,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끄달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 자기한테 다 맡겨 놓고 믿는다면, 지켜본다면, 거기에서 바로 하나하나 오는 대로 체험이 된다면 그건 그 열매를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써 더 얘기할 게 있으면 하고….

또 질문할 분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요, 죽고 사는 것도 그렇고 보석이 산더미같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고, 왜 그런지 담담해요. "저런 걸 가지고 울고불고하는구나. 한 철이라고 해서 한 철 다 살지도 못하고 반쪽 살면은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 해서 뒹굴뒹글 바람에 날려서 사대가 다 흩어질 것을 왜들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안타까울 때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 한 그릇을 가지고 숟가락을 열 개를 꽂아 놓고 먹는다 하더라도 좀 더 여유 있게 껄껄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 밥이 생각할 때 "흥, 요거 가지고도 너희가 넓게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참다운 지혜로써 나가니 내가, 밥이 더 와야지." 그러고선 그냥 밥이 술술 들어오거든요. 허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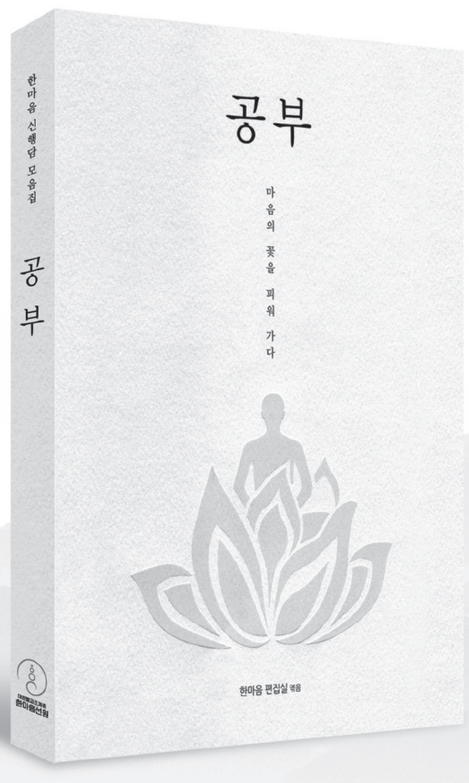
앉아서 천 리를 보고, 앉아서 자력으로써 끌어오고, 없는 사람의 것을 끌어오지 말고 있는 사람의 것을 스르르 오게 할 수 있고, 아, 또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재료가 저런 다른 혹성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추워서 사는 생명체들, 더워서 사는 생명체들, 뜨거운 데서도 사는 생명체들, 생명체 없는 데가 없어요. 모두 눈에 보여야만 있는 줄 아는 그런 마음은 버리고 좀 더 넓게 써서 모두가 두루 살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도 중생들이 꽉 찼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도 한자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위 법문은 1990년 2월 18일 정기법회 법문 중 일부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용광로에 모든 것을 넣는다면
자동적으로 새 쇠로 생산돼서 나오는데
생산될 걱정까지 하면서 거기 놓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탓입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